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라우 전쟁 종식 위해 영토 교환 논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강조
 - 미국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예상치 하회. 높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 등에 기인
 - 중국 총리, 경제 성장 유지 강조. 인민은행은 금리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 피력
 - 일본 닛케이지수, 2일 연속 사상 최고치. 인도는 대규모 감세 계획 발표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美-우크라이나 정상 회담 진행 등으로 대체로 관망 분위기
 - 주가 약보합[-0.01%],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라우 휴전 관련 기대와 불안 교차하며 약보합
유로 Stoxx600지수는 헬스케어 관련주 매수 증가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9월 FOMC에서의 빅컷 기대 감소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내 금리인하 전망 약화 등으로 상승
독일은 美-우크라이나 정상 회담 이전 경계감 등으로 3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6.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8.9원, 0.28% 상승). 한국 CDS 약보합

		8/18일	8/15일	전일대비			8/18일	8/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449.2	6,449.8	-0.01%	국채 금리 10y	미국	4.33%	4.32%	+2bp
	유럽	554.01	553.56	+0.08%		독일	2.76%	2.79%	-3bp
	중국	3,728.0	3,696.8	+0.85%		영국	4.74%	4.70%	+4bp
	일본	43,714	43,378	+0.77%	CDS 5y	한국	21bp	21bp	-0bp
	한국	3,177.3	3,225.7	-1.50%		중국	44bp	43bp	+1bp
환율	달러지수	98.15	97.85	+0.31%	위험 지표	EMBI+	-	334	-
	유로화	1.1661	1.1703	-0.36%		VIX	14.99	15.09	-0.66%
	엔화	147.89	147.19	-0.47%		WTI유	63.42	62.80	+0.99%
	위안화	7.1849	7.1845	-0.01%	원자재	구리	447.1	449.3	-0.48%
	원화	1,385.0	1,382.0	-0.22%		금	3,332.7	3,336.2	-0.1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라우 전쟁 종식 위해 영토 교환 논의.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 강조

-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회담이 종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할 것이며, 영속적인 평화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 보장은 유럽이 주도하지만,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부연. 이는 미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다만 영토 관련 두 정상의 의견은 엇갈린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한 영토 교환 가능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재설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 오히려 전쟁을 끝내려면 안전 보장이 핵심이라고 강조
- 양국 정상 모두 러시아를 포함한 3자 회담에는 긍정적인 입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구상을 지지하고, 3자 회담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직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가능한 빨리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발언
- 한편,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다음 단계의 협상은 반드시 휴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휴전 없는 협상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3자 회담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푸틴과 젤렌스키의 만남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 유럽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불가피하다고 첨언.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나토(NATO) 5조(집단방위) 모델 같은 강력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8월 NAHB 주택시장지수, 예상치 하회. 높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 등에 기인

- 8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32를 기록, 전월(33) 대비 떨어지며 '22년 12월 이후 최저. 또한 예상치(34)도 하회. 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인 주택구매 여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
- 재무부에 따르면, 6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9.13조달러로 사상 최대. 이는 전월(9.05조달러) 대비 0.08조달러 늘어난 것이며, 국가별로는 일본이 1.15조달러를 갖고 있어 미국을 제외한 최대 보유국

■ State Street, 美 증시에서 달러화 헤지 축소, Goldman Sachs는 고용 둔화 지속 예상.

- State Street는 미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달러화 헤지가 줄었다고 공개. 이는 향후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의미. 한편, Goldman Sachs의 데이빗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고용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해지고 있으며, 매월 3만 명의 신규 일자리 수 증가도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 EU 관계자, 미국과의 무역합의 공동성명 지연은 빅테크 규제 이견 등에 기인

- FT는 EU 관계자들을 인용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서비스법(DSA) 관련 이견 때문에 무역합의 공동성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 특히 양측은 무역장벽 가운데 비관세 장벽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

■ 중국 총리, 경제 성장 유지 강조. 인민은행은 금리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 피력

- 리창 총리는 소비 촉진과 주택시장 안정을 통해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 구체적으로 5%의 성장률 유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부연. 한편, 인민은행은 분기별 통화정책보고에서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 완화에 신중할 것이라고 제시. 다만, 적절한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당국은 자국의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AI 칩 가운데 중국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도록 요청. 반면,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시멘트 및 철강 생산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5%, 4% 감소. 이는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

■ 일본 닛케이지수, 2일 연속 사상 최고치. 인도는 대규모 감세 계획 발표

-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43,714.3로 마감, 전일비 0.77% 오르며 2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이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와 기업실적 경계심 완화 등에 기인. 한편, 인도의 모디 행정부는 대규모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계획을 내놓았으며, 이는 내수 활성화와 함께 지지율 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도 내포. 이번 조치로 10월부터 주요 생필품과 자동차 등의 가격이 인하될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19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보우먼 부의장 발언, 미국 7월 건설허가 및 주택착공, 캐나다 7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경제, 미국 관세정책을 견디는 듯 보이지만 향후 역풍에 직면할 우려 - WSJ

(Global Economy Took Tariff Hike in Its Stride, But Stronger Headwinds Are Ahead)

-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으로 국제무역 불확실성이 가중. 다만, 1/4분기에는 관세인상을 대비한 미국 기업의 재고 확보 등으로 성장률 유지. 그러나 2/4분기의 경우 영국(0.7%→0.3%), 스위스(0.8%→0.1%) 등에서 성장 둔화가 현실화
- 일부 국가는 아직 관세 여파의 충격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 일부 우려와 달리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상대국의 보복 조치는 없어 혼란의 가능성은 적으나, 추가 관세인상은 무역 감소, 기업 신뢰 악화, 공급망 부담 가중 등을 초래하며 글로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 미국의 양호한 2/4분기 기업 실적, 투자자의 경제 우려 완화를 유도 - WSJ

(Strong Crop of Earnings Eases Investors' Economic Concerns)

- 최근 양호한 소매판매와 낮은 소비자물가가 발표된 반면, 동시에 부진한 고용과 높은 생산자물가도 공개. 이에 투자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 이러한 가운데 고용 둔화와 관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고전이 예상되었지만, 2/4분기 S&P500 기업의 이익은 비교적 큰 폭인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 예상(7월, 5% 예측)
- 아울러,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직전 분기 대비 “경기침체” 언급도 크게 줄어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시사. 또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AI 기업들의 실적 호조, 무역협정 체결, 감세안 통과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감소하며 투자자 우려가 일부 해소. 그러나 높은 주가 수준은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잭슨홀 미팅,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 관련 명확한 방향 제시는 어려울 가능성 - 블룸버그

(Powell Has Reason to Hedge Jackson Hole Signal as Data Zigzags)

-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정책 변화를 시사했고, 이후 큰 폭의 금리인하 단행. 이와 같이 잭슨홀 미팅은 연준의 정책 변화 신호 발신의 플랫폼으로 활용된 전례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의 경우에도 다시 관심이 고조
- 그러나, 금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 시점을 명확하게 암시할 가능성은 낮은 편. 이는 주요 경제지표가 연준의 금리인하 신호를 유도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 또한 관세정책 여파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금리인하 보류 주장을 뒷받침. 연준 내부의 불충분한 의견 통일도 작용할 전망

■ **30년래 최저 수준의 미국 신용 스프레드, 경제 여건 고려 시 이례적 현상 - 블룸버그**
(Things Are Getting Weird in the Credit Market)

- 미국 신용 스프레드(국채와 투자등급 회사채의 수익률 차이)는 73bp로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이는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반영. 그러나 회사채 수요는 위험 감수 성향, 환율 변동, 헤지 비용, 수익률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에 최근의 현저히 낮은 신용 스프레드는 다음의 이유로 다소 과도한 수준일 소지
- 첫째, 불안한 거시 경제 환경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둘째, 3/4분기 기업실적 둔화(관세 여파 등) 가능성. 셋째, 무역정책 등을 반영한 스프레드 공정 가치 모델(Citigroup) 적용 시 스프레드는 현 수준보다 13~24bp 높아야 합리적. 넷째, 금리가 높은 수준이며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2%) 상회

■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관세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기인 - The Economist**
(Why America can't shake off inflation)

■ **미국과의 관세협정, 높은 관세율 교착상태 지속 등은 교역국에 부담 - 블룸버그**
(Trump's Unfinished Deals Worry Trade Partners Promised Tariff Cuts)

■ **미국 증시 투자자의 헤지 포지션 확대, 강세장 속 밸류에이션 부담 반영 - 블룸버그**
(Bulls Are Finding It's Time to Hedge Their Risky Bets)

■ **미국 증시, 고평가 국면으로 신흥국 분산 등 방어적 투자 등이 요구 - 블룸버그**
(US Stocks Look Even Pricier Now Than In January)

■ **중국의 다플레이션 탈피, 과잉생산 감축 보다는 소비 증진이 효과적 - Financial Times**
(What can really cure deflation in China?)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